

2005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

# 사진시장의 무한한 가능성, 최첨단이 하나되는 디지털 이미징 쇼

89년 첫 전시회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사진인들의 물적, 인적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2005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디지털영상전' 이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성공적으로 휘날레를 장식했다.

미국 'PMA 2005'와 일본 동경에서 열린 'Photo Imageing Expo 2005'에서 선보인 최첨단사진영상기기들의 여세를 몰아 이번 '2005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에서는 18개국 200여 업체가 참가했으며 지난 전시회보다 한 층 더 보강된 신제품과 신기술로 5만명이 넘는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할 점은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디지털사진 및 관련 업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반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전시회 참여가 돋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디지털포토 및 배경, 의상, 앨범, 액자, 스튜디오기재, 조명기기, 기타 액세서리 등에서도 소비자들의 변화된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각 종 아이템들이 선보여 국내외 바이어들과 전문가, 일반인들에게 사진시장의 확대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전시회로 평가된다.

|취재/윤미선 기자



▶ '2005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이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휘날레를 장식했다.

사진영상기기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5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 이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휘날레를 장식했다. 한국광학기기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 코엑스, MBC

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대한사진영상신문 후원, 삼성테크윈 협찬으로 치러진 이번 전시회는 전문사진인들뿐 아니라 보급형 디지털카메라의 영향으로 일반/아마추어 사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디지털흐름에



▶ 개막식 테이프 커팅식 광경



▶ 코엑스 진동언 팀장의 설명으로 전시회 개요에 대해 듣고 있는 내외빈의 모습



▶ 전시 안내 도우미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내외빈의 모습

발맞춘 각종 사진아이템들이 선보였다. 서울 국제 디지털영상전과 동시에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이 선보인 슬림한 디자인과 편리해진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디지털카메라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SLR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해 캠코더, 충전기와 메모리, 디지털현상기와 인화기, 필름, 코팅기, 디지털 스튜디오 장비 및 사진기자재, 각종 사진관련 액세서리 등 세계 18개국에서 200여 업체가 참가해 최첨단 디지털 사진/영상 장비들을 출품했다. 지난 2002년 10월, 세계적인 국제전시인증기관인 UFI



▶ 전시회장 전경



▶ 삼성테크윈, (주)LG상사, 코니카미놀타 등은 캐릭터 또는 모델과 함께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Union of International Fairs)의 정식멤버가 된 본 전시회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 인도, 중국, 홍콩 등 국내외 바이어들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됐으며 한국, 일본, 중국 사진가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한·일·중 교류사진전'과 '국내 온라인 사진동호회 사진전(캐논/니콘 클럽)'을 개최, 전문사진작가 뿐 아니라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에 따라 더욱 넓어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

의 생동감 넘치는 사진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 Raw촬영의 활용 ▲ 인상사진에서의 Capture One 프로그램 ▲ 디지털사진 전문가처럼 작품만들기 ▲ 디지털카메라의 로우파일 현상과 모니터 프로파일 ▲ 디지털 이미징 예측시스템/CMS의 현실적 접근 ▲ 전자앨범 Album Ok V2의 신기능 발표 ▲ 평면의 사진위에 입체를 표현하는 착시의 기술 등 다양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는데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파워포인트 및 각 중 기자재들을 활용해 진행하는 실제적인 강의가 이뤄졌다는 관람객들의 평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참가업체들이 마련한 체험의 장 및 포토 존, 무료 출력서비스 등 디지털카메라 현상, 인화, 출력시스템 뿐만 아니라 각 중 사진보정프로그램 및 대형디지털출력장비 및 3D 이미지 광고판넬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더욱 작고 슬림해진 컴팩트디카 VS 아날로그의 깊은 맛에 도전한다! SLR 디지털카메라**

●● 디지털카메라와 함께하는 이벤트, 포토 존, 무료 출력 서비스 등 관람객 열기 후끈

이제 디지털카메라에서 화소경쟁은 무의미하다.

“누가 더욱 작고 슬림한 디카를 소유하는가?”

“혹은 전문가 뽐치는 깊은 생각과 느낌을 담아내느냐?”가 관건인 시대가 온 것이다.

‘1인 1디카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디지털카메라업체들을 더욱 넓어진 LCD화면과 슬림한 디자인, 셀프카메라 및 다양한 촬영이 용이해진 삼성테크윈의 케녹스 #1, 후지 파인픽스 Z1, 코니카미놀타의 Dimage X60 등을 선보였다.

국내 카메라제조업체인 삼성테크윈에서는 수동기능이 지원되는 V10과 다양한 부가기능의 U-CA5, 올 8월말 출시 예정인 8백만 화소대의 고배율 줌 렌즈를 장착한 ‘Pro815’ 등의 디지털카메라를 출시하고 아기자기한 소품 및 캐릭터와 함께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해 관람객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한국후지필름(주)는 파인픽스 F10과 Z1과 디지털미니랩 프론티어 570/550를 선보이며 디지털미니랩 「프론티어 존」/디지털카메라 「파인픽스존」/인스탁스 즉석카메라와 필름, 배터리 등을 전시하는 「전시 존」의 3개의 전시관에서 사진촬영에서 인화까지의 통합디지털시스템을 선보였다. 네가필름의 구조로부터 발상한 2중화소 구조

대형CCD를 탑재한 후지필름의 파인픽스 S3Pro는 풍부한 계조표현과 피사체에 맞추어 다이내믹 레인지를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는 SLR 디지털카메라로 컴팩트 파인픽스 시리즈와 함께 큰 호응을 얻었다.

코니카미놀타로 합병,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주)우성필름은 전문 보디빌더들이 펼치는 인체의 강함과 젊음의 의지, 아름다운 곡선들을 관람객들의 뷰파인더에 담을 수 있는 이벤트를 펼쳤으며 하이엔드 유저용의 A200과 디지털미니랩 R3를 출품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모든 종류의 호환 렌즈들의 수입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주)우성필름 측은 전했다.

(주)LG상사는 모든 캐논 디지털제품과 망원렌즈로 전시 회장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지난해와 같이 컨셉카를 운영했으며 역동적인 브라질 삼바페스티벌의 무희들의 춤사위를 비롯해 부스 내 별도의 스튜디오를 운영했으며 EOS 350D SLR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한 캐논의 여러 제품들을 직접 촬영, 출력, 대형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코닥(주)는 이지쉐어(V/LS/DX/Z/C)시리즈와 SLR 디지털카메라 Pro SLR /n&c, 각 중 염료승화형1400, 포토프린터 6800등을 선보였으며 디지털 코닥 익스프레스의 매장 소개 및 제품전시했다. 또한 포토키오스크 PMG3를 통한 즉석 사진인화서비스는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디지털 인쇄/ 출력시장의 가능성을 열었다. HP 포토스마트 50/8750/8150/375/325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했던 한국HP는 디지털카메라 R717/R707/M417시리즈를 출품했으며 HP 디자인젯 90/4000/30/130등 대형 프린터를 이용한 사진색감과 이미지를 전했으며 다양한 사진출력, 인쇄 강좌를 진행하며 전문사진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이번행사에서는 디지털제품 순수 국산 브랜드인 (주)큐리오가 참가해 디지털 멀티 플레이어 V6000/V8000와 네트워크카메라인 IP-CAM을 출품했다.

이번 전시회의 디지털카메라 트렌드는 작고 슬림하거나 혹은 깊은 맛을 내는 고 기능성 SLR디지털카메라들이 주를 이루며 관람객의 맘을 설레게 만들었다. 또한 단순히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찍는’ 디카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투영시키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형’ 디지털카메라의 출품이 주를 이뤘다. 또한 관람객이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와 포토존, 무료 출력 서비스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뤄져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관람객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로 전시회의 재미를 더해준 코니카미놀타



▶삼성테크윈은 '케녹스 #1'을 중점 홍보한데 이어 다양한 포토존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주)LG상사의 캐논카메라는 작년에 이어 컨셉트카 전시와 삼바춤 추는 도우미를 내세워 참관객들에게 또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찍고! 또 뽑고~! 원 스톱 디지털출력장비 등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 얻어**

- 업체별 인쇄/출력 원 스톱 시스템 등으로 효율성, 생산성 극대화 제품들 대거 출품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은 아날로그 현상인화기를 디지털 미니랩 장비화 하면서 사진 출력시스템을 변화시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인 1디카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이

미지 인쇄/출력과 관련한 프린팅 업체들의 다양한 제품 및 마케팅 전략이 특히 눈에 띄었다.

최첨단 디지털 미니랩 장비를 비롯해 아날로그에 장착만 하면 디지털현상인화가 가능한 소형 이미징 장비/디지털 사진인화자판기인 키오스크 제품 등 다양한 출력장비를 선보였다. 또한 프린터 업체별로 집에서 촬영한 사진을 집에서 손쉽게 출력하고자 하는 '홈 프린팅 족'들을 위한 사진전용 포토프린터를 대거 출품, 인쇄화질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통합디지털시스템을 선보인 한국후지필름(주)는 디지털 카메라의 고화소화·고급화에 대비한 차세대 디지털 프린터인 프론티어 570/550시리즈를 출품했고, 디지털사진 인화자판기 '프란차오 QN/S'를 설치,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즉석인화 서비스를 시연했다.

한국코닥(주)에서는 '디지털 코닥 익스프레스' 매장 소개 및 코닥 테마앨범- 포토스토리과 포토캘린더, 잉크젯 사진용지를 비롯해 디지털 프린터 Theta50과 QSS-3001, 염료승화형 프린터 1400 포토프린터 등을 전시했다.

토털디지털 솔루션 공급업체로 발돋움중인 코니카미놀타는 젊은 보디빌더들의 힘찬 패기를 상징적으로 전략적 브랜드마케팅을 펼쳤으며 Dinax7D 프로용 SLR 카메라와 디지털 온라인 비즈니스에 적합한 디지털미니랩 R3를 선보였다.

(주)장은테크와 한국HP에서는 홈프린팅용 포토프린터와 대형실사 출력이 가능한 대형프린터 '엡손스타일러스 프로4000/7600/9600'와 'hp 디자인 젯 5500'을 각각 출품했다.

사진현상인화기 국내 제조업체인 캐리마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아날로그 사진인화기에 부착해 디지털 사진인화가 가능한 디지털프린트 시스템 'DPS-1'을 홍보했다. 'DPS-1'은120mm, 135mmv필름, 각종 메모리 카드, 사진, 일반 출력물을 선명한 디지털 출력이 가능한 제품이다.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각종 사진액세서리 대거 출품**

전세계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은 국내 스튜디오 기자재 및 사진액세서리들이 이번 전시회에 대거 출품해 디지털환경에 알맞은 사진환경을 조성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초극세사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클리너 제품 전문 제



▶후지필름(주)는 파인픽스 F10과 Z1을 중점 홍보했다.



▶캐리마의 DPS-1의 시연광경

조업체인 다미상사에서는 디지털카메라용 클리너를 비롯해 각종 생활용품용 초극세사 클리너를 선보였으며 오로라라이트뱅크에서는 퓨전플래쉬, 소프트박스, 리플렉터&액세서리 등을, 희망개발에서는 롤러방식의 초소형·초경량 즉석 퍼즐머신과, 핸드톱슨머신을 출품했다. 또한 사진기자재 전문업체인 (주)매턴에서는 디지털카메라 가방 및 각종 촬영용 가방, 슬림라이트 박스, 디지털 실버 스트랩, 카메라 액세서리, 삼각대, 배터리 수납 케이스 등을 홍보, 판매했다. (주)매턴의 디지털 실버 스트랩은 심플한 디자인과 시원한 금속장식이 제품의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디지털, 휴대폰, MP3 등에 결합이 쉬운 것이 주요 특징점이다.

광학용 렌즈, 프리즘을 포함한 광학부품 연구, 생산업체인 (주)대진스페셜옵틱스는 천체망원경을 출품, 천체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주)대진스페셜옵틱스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천체망원경 제조업체인 오리온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국내 오리온 천체망원경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명 전문기업인 (주)현대포토닉스에서는 사진 촬영용 스트로보와, 소프트박스, 스튜디오 액세서리 등을



▶한국코닥(주)의 포토프린터 1400시연 광경



▶(주)장엔테크/엡손에서는 대형프린터 엡손 스타일러스 프로 시리즈를 출품했다.

출품했으며 지난해 포토키나 전시회에서 각광받은 뒷방이 녹색, 노랑, 빨강 등 다양한 컬러로 제작된 소프트 박스는 베이비스튜디오, 웨딩스튜디오의 촬영 배경 및 세트와 조화를 잘 이룬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란소프트에서는 스튜디오에서 제작할 수 있는 고품격 테마앨범 제작 프로그램인 ‘스토리 박스’를 출품했다.

거인부락에서는 ‘숲속의 환타지 시리즈’ ‘정원의 향기 시리즈’ ‘올림푸스 시리즈’ 등 다양한 촬영세트와 배경을 전시장에 설치해 관람객들의 사진촬영 등을 통한 홍보전략을 펼쳤으며 원배경에서는 클래식한 분위기의 하이키 배경 및 출사용 스탠드 배경을 선보였다. 특히 원배경의 하이키 배경은 일본 사진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배경으로 일본 PGC회원을 포함한 일본 스튜디오 운영자들에게 주목받은 제품이다.

또한 유한기획(주)에서는 사진 열쇠고리 및 휴대폰 고리, 미니앨범, 차량용 스프링액자, 액자/앨범용 가방, 고급 금형라벨 등 사진으로 많은 다양한 판촉물을 출품했으며 유한기획의 꽃 풀더 거울액자는 거울에 사진을 부



▶오로라라이트뱅크 부스 전경



▶엔젤피아와 포아트 부스 전경



▶희망개발의 퍼즐머신이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디지털 카메라와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보인 SM 포토 개발



▶유한기획의 꽃 폴더 거울액자는 큰 호응을 얻었다.



▶원배경의 다양한 사진배경

착하여 사용하는 액세서리 기능과 실용성을 함께 지닌 제품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의상 전문업체인 동화여행, 엔젤피아, 친구사이/예닐곱, 예예사진기자재백화점, 텡커벨 등에서 감쪽한 베이비 의상을 비롯해 웨딩, 가족 사진 등 특별한 날, 나만의 특별한 사진연출을 위한 다양한 의상을 선보였다.

### 최첨단 디지털이미징과 함께하는 프로,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의 축제의 장

최첨단 디지털이미지메이커들의 각 종 제품과 사진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던 이번 전시회에서는 관련업체들의 단순한 제품 전시, 홍보를 지양하고 프로,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함께 체험하고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와 참가업체들의 다양한 시도가 이번 전시회를 한



▶에프피인터내셔널 부스 전경



▶카메라 가방 메모리 케이스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보인 디앤제이클럽



▶디지털 이미징 토탈 솔루션을 선보인 송화시스템

층 빛내주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 대표적 사진작가단체인 일본사  
진문화협회와 일본 PGC회원들의 작품을 엿 볼 수 있는  
'일본사진초대전'을 개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일본  
사진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 대표 온라인 사진동호회인 캐논클럽과 니콘  
클럽 회원들의 200여 점의 작품이 온라인 동호회 사진  
전 '캐논클럽, 니콘클럽'에 전시되어 늘어나는 아마추  
어 사진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 주  
목할 만하다. 이번 '온라인 사진동호회 사진전'에서는

목욕탕에서 발가벗고 목욕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  
롯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울고있는 아이의 모습, 부  
녀가 사이좋게 빵을 먹는 컷 등 일상에서 살펴볼 수 있  
는 친근한 모습들을 촬영한 사진과 꽃과 물방울 접사,  
이티오피아의 난민의 시선 등 전문가 못지않은 아마추  
어 사진작가 집단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전시회를 통  
해 바라볼 수 있듯이 디지털카메라는 단순히 특별한 날,  
일상을 촬영하는 도구가 아닌 평범한 하루하루를, 일상  
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매개체로서 자리매김  
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 Raw촬영의 활용 ▲ 인상사  
진에서의 Capture One 프로그램 ▲ 디지털사진 전문  
가처럼 작품만들기 ▲ 디지털카메라의 로우파일 현상과  
모니터 프로파일 ▲ 디지털 이미징 예측시스템/CMS의  
현실적접근 ▲ 전자앨범 Album Ok V2의 신기능 발표  
▲ 평면의 사진위에 입체를 표현하는 착시의 기술 등 다  
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진행되어 사진촬영 등에 심  
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뤄졌다.

**관람객만 5만여 명이 넘어, 국제적 전문전시회로  
교류 활발**

**●●PHOTO/ DIGITAL IMAGING 2005 참가업체 및  
참관객 성향 분석**

최첨단 디지털이미징과 함께하는 '서울 국제 사진영상  
기자재전(PHOTO/ DIGITAL IMAGING 2005)은 보는  
즐거움과 디지털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와 관련 업체의 사진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 신규비즈니스  
발굴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주요 참관객들의 직업별 비율을 살펴보면  
사진관운영 및 프로사진가(19.0%), 취미사진가(19.8%),  
디자인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참관객은 지난 2004년도  
대비 약 14% 전도 증가하여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지속  
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전체 57,130여 명 참관객 중 35.2%가 최종결정권  
자로 나타났으며 신상품/ 기술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전  
시회를 참관한 관람객이 32.1%, 일반관람이 31.4%, 구  
매조사 17.9%로 나타났다.

특히 관람객의 60% 이상이 카메라 및 카메라 액세서리,  
포토프린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해에 이  
어 올해에 전시회를 또 다시 찾은 관람횟수 2회 이상 관  
람객이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온라인 사진동호회 사진전(캐논/니콘클럽)



▶ 역시 전시장 한쪽에 마련되어 볼거리를 제공한 일본사진 초대전



▶ 전시장 내부 전경



▶ 전시주최측인 한국광학기학회도 전시회 기간동안 부스홍보를 통해 광학세계를 무료 배포했다.

이번 전시참가 연령은 20대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3.6%, 40대, 50대, 10대 순으로 20~30대가 주요 관람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전시회 기간 중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규제에 대한 의견 등 향후 개선사항들에 대한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PHOTO/DIGITAL IMAGING 2006' 사무국 측은 참가업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업체들의 행사진행시 주최 측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앰프의 출력을 제한하는 등 성숙한 전시 문화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